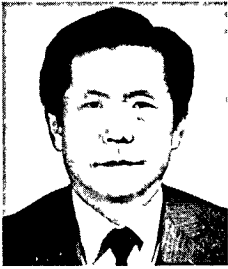


婦人不妊症 運用方

徐 錫 培



婦人不妊의 原因이 多樣하여 어떤 原因에 基準하여 治療하고 投藥하는 것이 最善의 方策이라고 結論지을 수 없으며 오직 오랫동안 不妊者를 治療하다보면 各自 選用方이 있을 것이고 筆者 역시 나름대로 論理에 의거 愛用方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婦人不妊의 原因부터 大體的 數置 몇 種만 살펴보면

一. 子宮發育不全

- 二. 先天的으로나 後天的으로 膻閉鎖
- 三. 頸管狹少(二, 三項은 韓方學的으로 胞門不開)
- 四 脂肪過多(痰積)
- 五 子宮內膜炎 및 子宮筋腫
- 六 腹中寒冷

七 血海太虛 등이 있고 男子의 原因도 수치상으로 三種類가 있다지만 여기 選用方은 婦人에 限하고자 한다.

不妊의 原因이 一時的 疾病으로 原因되는 것은 비교적 治療가 쉽지만 膻閉鎖나 頸管狹少 등이 다른 類와 비교하여 治療가 어렵다.

이왕 韓方學的 治療를 論하고 있으니 韓方學的 論理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 人體는 小天地라고 눈과 귀가 아플정도로 先賢들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學問에 종사하여 왔다. 春夏秋冬 四季節中 春夏의 氣運은 萬物이 生動하고 秋冬의 氣運은 萬物이 殺肅한다는 理論, 人體는 以陽으로 爲主하니 陽盛則生하고 陽衰則滅한다. 有陽(溫)則開하고 無陽(寒)則合한다. 有餘(血氣充足)則和暢하고 不足(血氣虛)則沈滯된다.

胞門이 開闢되면 有孕하게 되고 胞門閉合되면 不妊하게 된다.

不妊의 原因들이 여러형태가 있다고 以上 論하였지만 문제는 胞門이 門戶를 활짝 열어 卵巢가 精子를 받아 들여야 한다

以上과 같은 論理로서 우리 韓方에서 求嗣方을 考按하여 보면 거의가 胞門을 溫補하

■ 婦人不妊症 運用方

고 開闊하게끔 溫補辛熱藥材가 必要함을 알 수 있다.

따뜻(溫)하면 열어지고 擴張되며 차(寒)면 縮少되고 閉合되는 이치는 不妊症에도 해당되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不妊에 主種을 이룬 膻閉鎖나 頸管狹少 등이 이런 論理를 適應하여보면 方劑들이 은연중 想起되리라 믿어진다. 덧붙여 밝히고자 한 것은 우리가 많은 세월 本業에 종사하다보면 다른 疾患들도 適應方劑들이 먼 곳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서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간혹 있으며 既成方劑들은 널리 分布되어 있다.

結論적으로 不妊方의 先賢들 文獻을 보면 溫補辛熱藥品이 適宜하게 多量含有되었다고 筆者가 定立할 수 있는 方이 “調經種玉湯方”이다. 本方은 調經散과 四物湯合方에 加減方으로서 調經과 補血을 爲主하며 辛熱品이 溫補와 開闊을 주도한다.

藥品들을 보면 香附子 四物 牧丹皮 등이 調經과 補血하고 吳茱萸 乾干 肉桂 藥艾 등이 胞宮을 溫하게 하고 香附子 陳皮 玄胡索 川芎 牧丹皮 등이 開鬱通氣시킨다. 補溫 開鬱 調經하면 胞門이 열려 有孕하게 된다.

물론 陰部계통 各種疾病이나 유독 子宮肥大하여 脂肪過多로 인한 不妊은 除하고 一般的 不妊에 널리 使用되는 方劑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論理는 溫熱則 開의 論理도 成立되지만 熱則 膨滿의 原理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調經種玉湯은 三劑(一劑는 20貼準)內로 끝내야지 長期間 服用하면 溫熱補가 過하면 膨滿의 우려가 있어 胞宮이나 頸管이 狹少하여질 염려가 있으며 부득이 長服할 형편이면 桃仁을 加하여 쓰고 或 素稟이 虛弱함이 심하면 人蔘 白何首 加하고 紅花는 小加한다.

(1) 調經種玉湯

熟地黃 香附子炒 各8g 當歸身 吳茱萸 川芎 各6g 白芍藥 白茯苓 陳皮 玄胡索 牧丹皮 乾干炒 各4g 肉桂 藥艾 各3g 生干 3g.

× 婦人卵管이 막혀 下腹이 厭痛하고 經後時 腰痛腹痛하면서 不妊者는 下記方이 有效하다.

(2) 加減桂枝茯苓湯

當歸酒洗 白芍藥酒洗 桂枝 茯苓 玄胡索醋炒 香附子醋炒 各8g 半夏 白朮 牧丹皮 桃仁 川芎 乾地黃 各6g 乾干 藥艾 甘草 各3g 紅花少許

(3) 女金丹

本方은 古人들의 不妊에 愛用方으로서 널리 使用된 方이다.

香附子去皮 560g 當歸 75g 白芍藥 川芎 古本 人蔘 牡丹皮 白茯苓 白薇 桂心 白芷 白朮 玄胡索 吳茱萸 各38g 以上 藥을 3日間 酒浸後에 取出焙乾作末하고 熟地黄 75g 酒浸蒸하고 赤石脂 37g 沒藥 20g을 별도로 作末하여 모두 합해서 蜜丸 梧子大하여 매 회 60丸을 朝 晝 夜 三服한다.

※ 附言 평소 筆者가 좋아하는 節酒詩 一句를 남긴다

唯酒無量不及亂(論語)

節飲三杯固尾閭(醫學入門)

술의 양이 많고 적고간에 마시되 미치지 말고

절도있게 석잔만 마시면 尾閭를 튼튼하게 하느니라

(학술위원 · 전남 곡성군 읍내리 2구 천우당한약방 ☎ 061-363-2609)

● 상식 메모

用藥大法

用藥하는 法은 臨機應變을 重히 여긴다. 時代에 差異, 地域의 區別, 氣候의 變化, 體質의 厚薄, 疾病의 新舊, 年齡의 老少, 男女의 區別 등 差異가 있고, 또 貧富의 差異가 있으니 用藥時에는 神奇한 것만 찾지 말고 急速을 避하고 주저하지 말고 모름지기 慎重을 期하고 精密하고 詳細하게 다룰 것이다. - 藥性賦 -